

#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5·18 민주광장서 '성료'

지난 6월부터 청소년 주도로 기획·준비·운영 행사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이 지난 2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주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동명행복공동체와 함께 제9회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을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추진단이 구성되어 지난 6월부터 청소년 주도로 기획, 준비, 운영하는 행사

의미 있고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학생 및 타 시도 학생, 광주학생 500여 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오늘 한민족 청소년이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북아한민족 청소년 500인 원탁토론'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함께 참여했다. 제9회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청소년추진단장인 김미소 학생은 "9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민족차별과 불의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섰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행사 이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길거리 행진 재연행사'와 '전국학생문화예술축전'이 진행됐다.

## 전남도교육청, 문화가 있는 월례조회 격월제로 열어



전라남도교육청이 2개월에 한번씩 갖고 있는 월례조회에 공연과 영화감상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곁들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남도교육청은 1일(금) 오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단편영화 '힐링을 위하여'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팀인 'Put in Light' (이승재·순천고 3)가 제작한 것으로, 실패를 딛고 꿈을 이뤄가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아 11월을 시작하는 교직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줬다. 도내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된 'Put in Light' 팀은 전문가와 연계해 영화 프로덕션

과정을 이수하고 단편영화 UCC 등 영상물을 제작해 대한민국청소년영상대전 공익광고 부문 서울시 장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미소·친절 직원으로 선정된 서수현 교사(강진고등학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고, 한경호 홍보담당관실 장학관과 남철민 주무관의 전남교육 홍보 방안 및 SNS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도 가졌다. 앞서 지난 9월 월례회의에서도 목포 영화중학교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팀인 '시나브로(지도교사 김기도)'가 깜짝 공연을 펼쳐 2학기를 시작하는 교직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9월 영화중 학생들의 공연에 이어 오늘은 영

화상영까지 문화가 곁들여진 회의 분위기가 참 좋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많다."라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패도 자선이다.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교육청 문화를 만드는 데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미래도전프로젝트'는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가장 역동적인 학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4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482팀과 국외 28팀 등 최종 510팀이 선발된 뒤 특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팀원과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성과 협업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 송광중,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성과' 얻어



송광중학교(교장 오세승) 학생들이 11월 1일(목)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및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제15회 전국학생미술대회 및 제12회 전국학생글쓰기대회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2019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주최하고 동구문화원에서 주관한 '전국학생 글쓰기 & 미술대회 및 제7회 광주광역시

송광중학교(교장 오세승) 학생들이 11월 1일(목)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및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제15회 전국학생미술대회 및 제12회 전국학생글쓰기대회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가은(1학년) 학생은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대상을 수상했는데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북트레일러', '재미있는 책놀이', '캔버스 DIY 페인팅' 등 여러 표현 활동

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희영(1학년) 학생은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유학년제 활동 중 '살아있는 국어여행' 수업에서 '나의 미래의 직업', '나의 추억'에 대해 글짓기 활동을 하며 완결된 문장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 '편견철폐수학'이라는 수업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와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글짓기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송광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우수상, 특선, 입선 등 많은 수상을 했다. 송광중학교는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의 자유학년제 활동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처음 학교로' 모든 유치원 참여

우선모집 기간,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1월 1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공립 133개원, 사립 155개원 총 288개 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추천, 선발,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학부모와 유아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유치원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년도에 처음학교로 참여율 99%로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앞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함께 개선 보완해 나가는 등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9시부터 학부모에게 시스템을 개방했다. 우선모집 접수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반모집 접수는 11월 19~21일이며 이 기간 동안 희망하는 유치원 3곳까지 접수할 수 있다. 추첨 및 선발은 우선모집 대상자는 11월 12일, 일반모집 대상자는 11월 26일 전국 동시 진행되며 추첨결과는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앞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함께 개선 보완해 나가는 등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